



포장기술사의 저변확대 노력

포장의 중요성 인식

김기섭 / LG생활건강 포장개발센터 부장

“엔지니어로서 국가가 인정하는 최고의 전문가를 의미하는 포장기술사시험에 합격하여 우선 기쁩니다. 한편으로는 이 분야에 최고 전문가로서 능력을 나 자신이 지니고 있는가? 또한 포장분야에 어떻게 기여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책임감과 중압감을 느낍니다”

이번 2001년도 포장기술사 자격증을 취득한 LG생활건강 포장개발센터 김기섭 부장의 소감이다. 김기섭 부장은 포장 연구 개발 분야에 10년 넘게 근무하면서 자신에 대한 실력을 점검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로부터 포장기술에 대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간 쌓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시험에 응시하게 되었다고 한다.

“기술사는 엔지니어로서 최고의 전문가를 의미하기 때문에 단순한 자격이 아니라 자타가 인정하는 기술자가 되어야 하겠으며, 포장기술사의 저변확대를 위한 노력과 질적인 수준 향상이 계속 이루어 져야 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무한 경쟁시대에 있어서 포장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일부 최고 경영층에서 그 중요성을 조금씩 인식하기 시작하였으나, 아직 포장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포장인은 포장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는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 4년제 대학에서 포장학과의 신설 등으로 늦었지만 정말 다행스러운 것으로, 학문적으로 좀 더 깊이 있고 체계적인 연구와 산학 협동활동이 더욱 활발히 이루어져야 합니다”고 피력했다.

충남대학교 공과대학 박사과정 3년 이수, 현재 논문 준비중인 김기섭 부장은 (주)LG화학 생활과학연구소 생활용품 포장연구개발과 (주)LG생활건강 포장개발센터 생활용품 포장연구개발에 이어 현재, 포장개발센터 부장으로 소임을 다하고 있다. 또한 표준협회 주관 품질관리기사 교육 과정 이수(60일) 및 품질관리기사 1급 자격취득 독일 HENKEL社 (생활용품 제조업체) 포장연구소 기술 연수 및 미국 라벨 업체 Avery-Dennison사 기술연수를 받았다.

마지막으로 김기섭 부장은 “포장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연구를 위해 계속 공부하여, 포장 기술인과의 교류확대를 통한 정보 및 지식의 공유로 포장산업의 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